

광주 출산맘 나눔가게, 출산·육아용품 무료 지원 ‘눈길’

양육 부담 경감·저출산 해결 지원 취지

출산·육아용품 1만여개 교환·공유 주선

광주지역 임신부들에게 출산·육아 용품을 무료로 나누는 ‘광주 출산맘 나눔가게’가 눈길을 끌고 있다.

육아용품 공유 커뮤니티 ‘광주 출산맘 나눔가게’는 지역 임신부들에게 출산·육아 용품을 무료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가게는 출산·육아용품을 기부 받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 양육에 대

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가게엔 젖병·노리개를 비롯한 출산 용품과 유모차·카시트 등 육아 용품이 갖춰져 있다. 물품은 1만 여 점에 이른다.

무료 지원을 희망하는 임신부는 하루 6개 항목의 물품을 이용할 수 있다. 횟수 제한은 없다.

남구 진월동 국제테니스장 인근에 위치한 나눔가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한편, 같은 날 광주에이스라이온스클럽 최하순 회장은 가게를 찾아 수유·위생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65만 원을 기탁했다.

가게 위탁·운영 기관인 광주제능기부센터 하상용 대표는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후원에 나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윤희 기자



함평군 노인복지관 특별행사, ‘사랑의 봄꽃 나눔’

함평군노인복지관의 ‘청춘불패봉사단’ 어르신들은 22일 함평군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사랑의 봄꽃을 전달했다.

사랑의 봄꽃은 개별포트마다 심은 프리지어, 톨립 등 소화분 15개로 어르신들이 직접 준비했다.

어르신들은 “함께 희망의 봄을 기다려요!”라는 응원 메시지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고마움을 전하고, 보건소 직원들과 치매파트너 및 게이트키퍼 홍보를 위한

홍보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치매안심센터를 찾은 송*례(74세)씨는 입구에 배치된 화분을 보며 “향기로운 봄꽃향기와 흙냄새가 불안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위로하는 것 같다”며 서로의 값진 마음을 응원했다.

한편 함평군보건소와 노인복지관은 치매선도단체 협약을 통해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쉼터 찾아가는 인지재활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곡성군 “아이돌봄 지원은 늘리고 부모 부담은 줄이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60%~100%까지 지원

곡성군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올해 대폭 확대했다.

곡성군은 지난해 5월부터 군 자체 예산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민선 7기 공약으로 내세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확대’의 일환이었다. 소득유형별로 4구간으로 나눠 4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했고,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셋째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했다.

올해는 시행 2년차를 맞아 3월 19일부터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율을 기존보다 20% 높였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 120% 이하 가정은 기

존 60%에서 80%로, 120% 초과 ~ 150% 이하 가정은 기존 50%에서 70%로, 150% 초과 가정은 기존 40%에서 60%로 높아진 본인부담 지원율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았던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은 올해도 동일하게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받던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도 완화했다. 올해부터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이면 둘째 아이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 받게 된다. 합계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둘째 이상을 낳는 가정도 드물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1:1로 돌봐주는 것을 말한다. 부모의 출장, 야근, 아동의 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는 학교 및 보육시설 등하원, 임시 보육,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은 시간제(일반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시간제는 연 840시간 이내, 종일제는 월 200시간 이내에서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최근에는 곡성군과 같이 정부 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을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곡성=양혜영 기자

담양 가사문학면,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역량강화 교육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복지사각지대 발굴 필요 역량 강화

담양군 가사문학면은 23일 면 회의실에서 복지기동대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역량 교육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이필호 복지기동대장을 비롯한 12명의 대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취약계층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교육’라는 주제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박진관 가사문학면장은 “이번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복지기동대원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회취약계층 일상생활 불편해소와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